

나일론을 이용한 흡한속건 소재 'salacona' 개발

도레이

최근 들어 도레이는 패션의류소재용 나일론 소재 개발 및 용도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여성 및 남성용 의류사업부에서는 2015년 춘하용으로 나일론 장섬유 의류소재 'salacona'를 개발하였다. 이 소재는 매트(mat)한 느낌과 상쾌한 촉감 그리고 흡한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어, 쾌적성이 우수하여, 블라우스 등 피부에 직접 닿는 경량 의류용도로 개발되었다. 도레이에서는 이 소재에 대해 지난 6월에 열린 '도레이 2015년 춘하 남성 및 여성복 소재전'을 통해 홍보를 시작하였다.

'salacona'는 폴리에스터 흡한속건사에 필적할만한 흡한속건성을 나일론으로 실현한 소재이다. 이 소재는 육엽(六葉) 이형단면사와 원형사를 혼섬하여, 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모세관현상을 발현시켰다. 또한 세라믹 입자를 고농도로 넣거나, 저권축 발현 등 독자의 가공기술을 적용하여 광택을 줄여 원단에 매트한 느낌을 부여하였다. 또한 이 소재는 다른 합성섬유에 비해 공정수분율이 비교적 높은 나일론만이 가능한 축축한 감촉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.

도레이사는 'salacona' 소재에 대해 바지용 스트레치 직·편성물, 재킷용 등 중간두께의 의류용도로 전개를 시작하여 3년 후 2만장의 판매량을 계획하고 있으며, 경량 의류용도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나일론 소재의 사용증가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인 유럽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.

기존에 나일론 소재는 스포츠나 이너웨어 분야가 주요한 용도였으며, 패션의류용으로는 아우터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. 그러나 'salacona'의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드레스나 블라우스 등 피부에 직접 닿는 경량 의류분야로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.

또한 도레이는 여성 및 남성용 의류사업부에서 2013년 연말 나일론 초극세섬유를 사용한 패션용 텍스타일 'MIRANY'를 발표하는 등 나일론 소재 전개를 강화하고 있으며, 감성측면에서 쾌적성을 부여하는 기술개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.



< 도레이사 흡한속건성 나일론 소재 'salacona' >



< 도레이사 초극세 나일론 소재 'MIRANY' >

♣ 섬유뉴스(2014.6.5)